



김용길 선생 12 0 12 0

김용길 선생은 1920년 12월 3일에 원동현 강
변리모로리, 부촌리구역 다우지리 촌에서 태어나시
었다. 그의 부모, 부친 김운호(1888-1956), 어머니
김진옥(1893-1966) 두 분은 일평생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면서 아주 근면한 가정으로 남부럽지 않게 아주
원절하고 다정스럽게 잘 지내었다. 김용길 선생은 장
남으로 태어나 항상 부모들의 일을 돕으면서 유년시대
부터 로동예단원 되었으며, 근면한 정신으로 자기 사
상을 부강하면서 정직성과 삼복에 대한 존경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지하였다. 김선생이 고양받고 자라난 환
경은 그렇게 넉넉한 물질적 조건은 안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가정에 5남아가 자라났던바, 김선생 외 또
남동생이 한명이 있고 그외에도 여동생이 세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선생의 부모들은 일평생 농
촌에서 농사 짓고 사는 농민이었으며, 원동에서 농민
들의 단합화 정책에 전방적으로 참가하자 그 첫날

북한 즉 1929년 부터 형동조합으로 입회하여 1947년
까지 열성적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취세우고 1937년
한인들의 원동으로 부터 강제이주 어록에 드 우르백한
다슈켄츠크주, 상부 칠치구역 "보보라우다" 끌호르에서
계속 일하시다가 1947년 부터 년급생활에 넘어
가자 부모들은 립선생의 부양가족으로 계시다가 아
버지는 1956년에, 어머니는 1966년에 별세하시었다.
림용집 선생은 1940년에 고공을 마감한 다음 대학
에 공부하려 할 경제형편이 못되어 "보보라우다" 끌호르
에서 1940 부터 1943년 까지 소학교 교원으로 일하였
다. 1943년 8월 부터 1946년 말까지 다슈켄츠크
주 상칠치구역 동산기계 립핑소에서 처음 일년간은
회계원으로 다음 복기부장으로 일하였다.

1947년 정월 부터 두 개 월간 우르백 정부 교육성에서
조직한 로어 강습소에서 로어 교원 강습을 한후 1947년 8월
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조선인
민군 정치군관학교 로어 강좌장으로 1950년까지 일
하시고 다시 전근되어 총정치국 군사 번역부 부장으로
1956년까지 일하시었다 당시 군사 칭호는 - 정치군
관학교 번역과장으로 제설시에는 중좌였고, 인민군
총정치국 번역부장으로 제설시에는 상좌였다.

림용집 선생은 1950년 5월에 총정치국에 전근 되어
출타하셨으나 1950년 6월 25일에 동족상잔이 시작
되었기 때 문에 동년 9월에는 총정치국과 함께 후퇴하
여 개천, 희천, 만포를 걸쳐 동만 좁안역 건너가 흥
화시에 약 일년간 있다가 유엔군이 중국지원군
에게 패하고 다시 삼팔 이남으로 퇴진하자 총
정치국은 다시 평양으로 이주하여 나가서 대성

대성산 절간에서 자리잡고 1955년 까지 있게 되었다.



사진은 1954년에 리용길 선생이 자기 ¹²친인 ¹²우류마와 같이 평양 대성산 절간 마당에서 촬영한 것이다.

리용길 선생은 알수는 적지하시나 관찰력이 강한 간부로서 북조선에서 돌아가는 정치적 기풍에 대하여 대단히 속을 태우며 지내었다. 1953년에 당 중앙위원회 허가이를 아사하고 최동석 당국사령관을, 또 경찰부 제 4군단 장등을 취직 제대시키고 이어 박헌영에 대한 허위공판의 허구를 열린 공산당의 노간복을 "외국노타이니 일본간첩이니" 하는 추명을 붙여 처단하면서 한때 사상검토 운동을 벌여 놓고 간부들을 사령하여 취직, 유행지 좌편, 처단 하는것을 위하여 바라본 리선생은 북조선 정치상태가 공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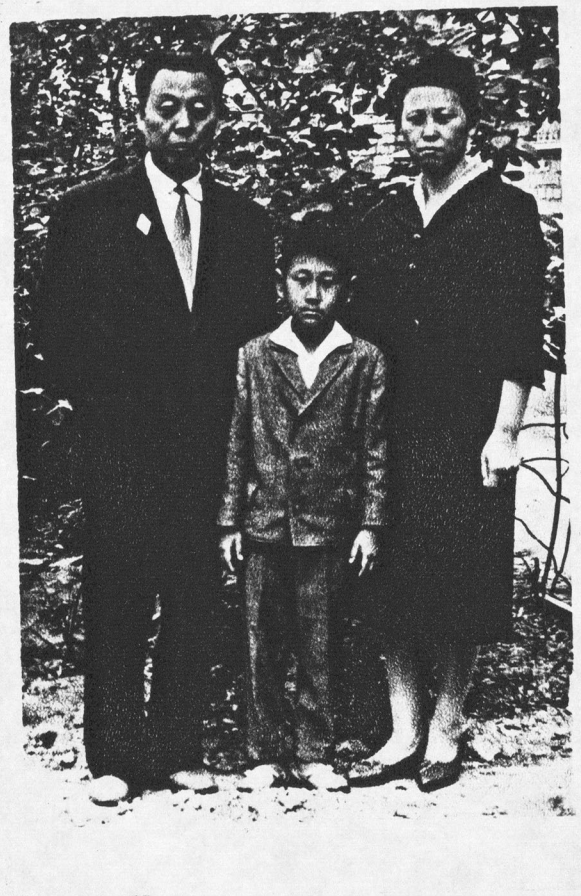
조선에서 퇴학되어 김일성 독재주의, 인공제도에서 떠나
 공주 제도에 넘어가고 있는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
 경에서 독립적으로 김일성 관당과 투쟁한다든것한다 최
 타위 북한은 떠나 과학에 정신을 넣는것이 좋다고 생각
 하고 모스크바로 떠날것을 결심하였다



사진은 림용길 선생이 총정리국 번역과장으로 재직시, 1955년
 에 찍은것인바, 좌로부터 제3위에 림선생, 6위에 허학철, 8위에 리사남, 9위
 에 총정리국 지도원 박재규 등 동지들이다.

림용길 선생은 자기 결심한바와같이 1956년 7월에 평양을 떠나 소련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북한에서 파견된 유학생들과 같이 모스크바 국립
 로모노소프 명칭 종합대학 철학부에 입학하게 되어 그학부를 5년간
 수료하고 다슈켄츠 자기 친척들이 살고있는 우즈베크한에 파견받아
 모게되었다. 우즈베크한공산당 조직부에 파견된 림선생은 당조직
 부의 지시에 따라 우선 사학을 목표로 배정받았으며 우즈베크한 기
 술 종합대학 철학부, 처음에는 조교수로 수료받아 일하시다가 약
 반년 이후부터 상급 교수로 일하시면서 1962년에 시작하여 학사
 학위논문들을 수료하기 위한 학위논문들을 준비하는 한편 학위논문
 시험을 변공법적 및 역사적 유물론과 외국어(영어) 과목들은
 1965년에서 시험종후 " 기술대학 총신학부 학생들의 마스-
 레닌주의 철학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형식과 방법의 몇가지
 문제" (우즈베크공화국 각 대학 철학부들의 사업 경험 종합론에
 근거하여) 제목을 공심하여 연구하여 그제목으로 학위논문

을 서술할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리용검 선생은 1967년에 다슈켄스 기술 대학 박사 후보로 교주와 함께 "광범한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있어서 말선-레닌주의 리론 언석으로 동계급의 기본적 자각성"이란 제목으로 공동 저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사진은 1966년에 다슈켄스, 쉐란사르 사해구역 자지집정원에서 리용검 선생, 사모님 우류바, 둘째 아들 세르제이와 찍은것. 리용검 선생은 기술종합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교원일을 하시면서 다슈켄스시 당 선전부 지도원에 1963년 복귀 시작하여 12년 야간 말선-레닌주의 당학교 강사로 계속 일 하시면서 자기 대학 세미나도 한번도 빠짐없이 지도 하시였다 철학이란 아주 기쁜 리론적 과학이였지만 립선생은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사업에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하기 위하여 애써 하였다. 립선생의 성격은 아주 온순하고 정직하였으나 불공정한 일에 대하여서는 타협함이 없이 그 측근에 비판하고 하였다 때문에 립선생은 복한에 계속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복한의

· 무법천지 현상을 보지 않고 눈을 감을수 없었고, 또 자기가 목격한
 전을 말하지 않고 묵과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림선생은 노련
 의 가장 어려운 시기, 소련이 화소 독일과 생사를 판결하는 시
 기인 1941년에 노련 공산당에 21세의 어린 나이에 입당
 하여 자기 생애의 맛이 막날까지, 진실한 공산당원으로
 그 범의를 수호 하였으며 모 법적으로 생의 걸음을 걸었다.



림용검 선생이 하슈켄스 기술 종합대학 철학 강좌 수업
 피우루 게시시엔 1970년에 촬영한 사진이다.

림용검 선생이 모스크바에 유학하여 도착하였을시 벌써
 북한에서는 당내에서 개인숭배 사상을 폭로하고 철저회 회
 의회기 위한 제 8차 노동당 중앙 전원회의가 지나가고 전북
 한 전력을 걸쳐 당내 사상투쟁 문제가 아주 활발히 일어
 화 된 시기였다. 전 북한뿐 아니라 모스크바에 와서 조선민주
 주의 공화국 대사를 게시던 리상조 선생을 선두로 하여 전
 체 유학생들이 노동당내 김일성의 독재주의, 개인숭배 주의
 를 반대하여 북한의 극적을 거절하며, 진실하며 철저한
 공산당 로선을 위하여 대대적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기들의
 대학공부로 중화하는 현상들이 전반적이였다. 이러한
 형 평에서도 림용검 선생은 자기가 현행 정치의 흐름이

판단을 옳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북한은 버리고
 북한으로 귀국한 것이 참 옳게 된 거름이란 것을 결론짓고 헛기
 초어로 목에 달았던 가태를 떼어내고서 « 자 너어들은 싸울
 때를 싸워라, 나는 벌써 결론을 짓었고, 이곳에서 학살에 나
 도를 당해다라 » 생각하면서, 출항 복를 수로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공부하고 존엄감으로 받아들인 립옹검 선생도 북한
 국적을 거절하고 북한에 다시 가지 않았다. 이때에 벌써 립선
 생은 니 세의 성숙된 정객이었다. 선생은 어떻게 국적을 거절
 하였지만, 또 조국에 돌아와 각국에서 일할 것을 거절
 하였지만, 조국생각을 계속하시면서 북생각으로는 항상 울고
 계셨다 그것은 립선생의 북한국적의 '거절은 영원한 거절인
 것'이 아니라, 다만 북한 정치체계의 변동될 때까지의 거
 절이었기 때문이며, 북한에 다시 들어가 상업하실
 것을 항상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립선생은 말
 이 막 시기에 심장마비병으로 심증하시다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조국행위로 보시지 못하시고 1983년 정월
 6일에 하슈켄호시, 자기 사택에서 별세 하셨습니다.

1997년 4월 3일 Mawkenin.